<보안관 시나리오 : Chapter2>

1. 딸의 행방을 모르는 보안관은 불안한 마음으로 펜션주인을 찾으려 한다.
2. 흔적을 따라오게된 보안관은 숲속 좁은 길 입구에 오게 되었다.
3.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을 보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4. 그때 왼쪽대각선 방향으로 비명소리가 들린다.  
   [보안관]누군가 있다…!
5. 그쪽으로 몇걸음 걸어가는데 어둠속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6. 흠칫 놀라며 다리를 보니 죽어가는 좀비가 있다.
7.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보안관은 그냥 두고 간다.
8. 소리쪽으로 조금 더 가니 어떤 여자가 떨고 있었다.
9. 자세히 보니 보안관의 아내이다.
10. 아내를 달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본다.  
    [아내]펜션주인이 추천해준 곳에 딸이랑 놀러가려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혼자 있었어… 그 여자를 만나야해  
    [보안관]알겠어.. 여기 잠깐만 있어봐 앞에만 보고 올게..
11. 앞을 내다 보기위해 몇걸음 앞으로 가는 보안관
12. 길을 파악한듯 부인에게 오려는 보안관  
    [보안관]여보 어딘지 알것같아.. 이쪽으로…  
    [아내]아악!
13. 그 순간 아까 죽이지 않은 좀비가 다가와 부인을 물어뜯었다.
14. 보안관은 그대로 얼어붙어 부인이 좀비에게 물어뜯는 광경은 목격한다.
15. 뒤늦게 좀비를 총으로 쏘지만 이미 부인은 호흡이 가빠졌다.
16. 부인은 힘겹게 말을 한다.  
    [아내]여보.. 그 펜션여자를 꼭 찾아요…그래야 우리딸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날 죽이고 가.. 안그러면 내가 당신을 해칠거야…
17. 실의에 빠진 보안관은 울며 아내를 눕힌채 앞으로 걸어가다 다시 뒤돌아서서 아내가 있는 쪽을 향해 총을 쏜다.
18. 총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돌연변이들의 소리가 울린다.
19. 그 소리를 들은 보안관은 기관총을 꺼내든다.
20. 돌연변이들과의 긴 전투를 벌인다. 지형이 좁고 길다.
21. 전투가 끝난 후 옷이 더럽혀졌다.
22.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
23. 여자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선다.
24. 여자가 뒷걸음질 치려고 하자 나는 급히 말을 한다.

[보안관] 저기요!!! 잠깐 얘기해요!

[여자(펜션주인)] (사람인가…? )

[보안관] 혹시 그쪽이 펜션주인입니까?

[펜션주인] 네, 그런데요...

[보안관] 당신!! 내딸 어디에 놨어!

[펜션주인] 저..전 아무것도 몰라요!! \*\*쪽으로 가보라고 한것밖에..

[보안관] (모른척 하겠다는 거군…)

후… 그럼 딸 찾을때까지 협조좀 해주쇼.

1. 보안관은 딸을 찾기위해 펜션주인과 함께 가기로 한다.